



현미경의 '섬·섬'. 제주섬유예술가회 제공

자연과 문화, 공동체 기억 섬유 예술로 직조한 제주 제주섬유예술가회 정기전

섬유 예술로 직조한 제주 이야기가 있다. 제주섬유예술가회의 18번째 정기전이다.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창작오피스튜디오 뜰(제주시 관덕로 6길 11, 2층).

2009년 창립한 제주섬유예술가회는 올해 처음 서울·대구·제주를 잇는 순회전을 기획했다. 서울과 대구에서 제주의 섬유 예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린 회원들은 제주에서 순회전의 마지막 여정을 펼친다.

이 전시에 달린 제목은 '섬·섬'. 섬이라는 제주의 공간적 의미와 섬유 예술의 섬세하고 다층적인 물성을 더한 말이다.

참여 작가는 19명. 회원들은 미술, 디자인, 공예, 의상 등 각기 다른 분야를 전공했다. 이들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공동체의 기억을 천연 염색, 납염, 퀼팅, 터프팅 등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신작을 선보인다.

이 중에서 현미경의 '섬·섬'은 제주목 관아 입구 이미지를 프린팅한 원단과 여러 패턴의 직물을 결합해 새로운 손수건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업으로 제주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흐른다. 현미경의 '섬에 봄이 오다'는 제주의 밭담 사이로 피어난 유채꽃을 소재로 자연의 순환 속 달리는 기억과 감정을 담았다.

제주섬유예술가회는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에서 현대적 조형 언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표현 방식은 섬유 예술이 지닌 매력을 보여주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제주도 유산위원회’ 통합 출범 전망

국가유산기본법 개정 따라
자연·문화·무형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 3개 분과 설치
자연유산위 존속 기한 만료
조례 제정 작업 ‘발등의 불’

제주도 자연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등으로 분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해 새롭게 출발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자로 시행된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기초한 것이다. 이 법에 도지사 등이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시·도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각각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연유산

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별도 조례 제정에 나섰다. 기존 위원회 수는 자연유산위원회 10명, 문화유산위원회 10명, 무형유산위원회 15명이다.

조례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이하 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유산위원회에는 유산 유형별 조사·심의를 위해 무형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각 15명 이내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조사·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꾸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문위원 위촉 인원은 각 분과위원회별 10명 이내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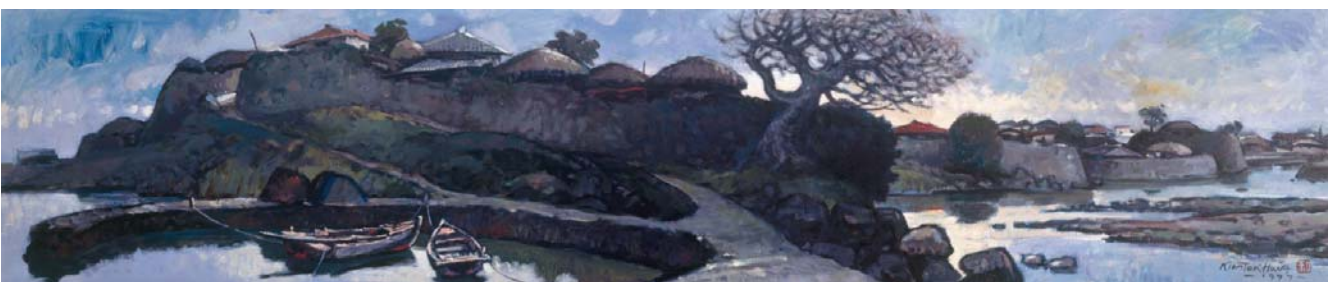
도의회는 이달 14~20일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열리는 제453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에서 조례안을 심사한다.

도의회 등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건 기존 3개 위원회 중 제주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2026년 5월 17일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는 2024년 자연유산보존·활용 조례 제정 당시 관련 법에 따라 명시했다. 후속 대책 없이 자연유산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6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한 비상설위원회로 자연유산임시위원회를 짜서 안건을 심의해야 했다. 문화유산·무형유산위원회는 조례안 부칙에 경과 조치가 있어서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유산위원회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합동분과위원회 운영 등 통합적 시각으로 제주 유산의 보존·관리만이 아니라 활용까지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김택화의 '신흥리'. 1997년 그린 유화 작품이다.

김택화미술관 제공

그림 보고 그리고 달린다

내달 1~2일 신흥리 일원
김택화미술관 아트런 행사

그림을 보고, 그리고, 달리며 만나는 특별한 제주가 있다. '러닝(Running)&드로잉(Drawing)': 김택화미술관과 함께하는 신흥리 아트런'이다.

김택화미술관과 김택화미술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6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복합 행사·홍보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8월 1~2일 성인 각 20명씩 모집해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 자리한 김택화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설을 들은 뒤 오일파스텔로 제주의 풍경을 직접 그려본다. 이후 일몰 시간에 맞춰 신흥리 해안을 함께 달리며 작품 속 장소와 실제 풍경을 몸으로 경험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30

분까지. 러닝 코스는 김택화미술관에서 출발해 신흥리 해안과 관곳 일대를 거쳐 돌아오는 약 5km 구간이다.

신흥리 포구는 러너들에게 사랑받는 코스로 제주의 고즈넉한 어촌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김택화화백도 '신흥리' (1997)란 제목으로 바다와 포구, 돌담과 마을이 어우러진 그림을 남겼다.

참가비 무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김택화미술관 누리집 참고. 문의 064-900-9097. 전선희기자



박정근의 '화권영애 이야기 (주단잠바)' (2023).

제주갤러리 제공

그날 이후 삶과 일상에 남긴 흔적들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박정근 개인전 '404...'

4·3관련 영상·사진 작업

밀도 높은 사진 작업으로 제주의 사람과 자연이 품은 사연을 전해온 박정근 작가. 그가 제주도와(사)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제주갤러리(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 공모 선정 전시를 펼친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개인전은 '404: Page Not Found'란 이름을 달았다. 어디서 본 듯한 문구일 게다. 웹에서 요청한 페이지를 서버가 찾을 수 없을 때 표시되는 바로 그 오류 메시지다. 작가는 그 메시지에서 단일한 이미

지나 설명으로 무키 어려운, 쉽게 열리지 않는 제주4·3을 떠올린다. 이 전시에는 그간 작가가 4·3 이후의 삶과 일상에 드러온 흔적을 사

진과 영상으로 탐색한 작품들이 모인다. 4·3과 6·25 전쟁 등 참혹한 세월을 겪은 어느 청년의 생애가 흐르는 '사소한 위로-오테경', 4·3의 와중에 같은 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부의 연을 맺고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온 두 사람을 담은 '희권과 영애 이야기', 찢기지 않는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들의 초상으로 구성된 '할머니,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등 대표 연작이 나온다. 일본 오사카까지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바다, 피로 물든 역사의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또 다른 목격자인 나무 이야기도 있다.

제주갤러리 측은 “관람객은 생존자의 얼굴과 목소리, 장소와 풍경, 그리고 사진이 끝내 담아낼 수 없는 시간을 마주하며 제주4·3을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삶의 역사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했다. 8월 10일까지. 오프닝은 23일 오후 5시. 전선희기자

변시지 탄생 100주년 행사

다음 달 1일 그리기·토크쇼

다음 달 1일 서귀포시와 서흥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귀포시 서흥동 출신 변시지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100년의 바람, 변시지'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다. 오전 10시 개막식(서흥동 변시지 그

림정원)을 시작으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변시지 그림정원), '에피소드 토크쇼-내가 만난 변시지' (기당미술관)가 잇따른다.

기당미술관에서는 8월 한 달간 토요일마다 변시지 탄생 100주년 특별전 연계 무드등 만들기, 키캡 만들기 등 어린이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누리집 알림마당 참고. 전선희기자

novita
A KOHLER COMPANY

기간 한정 이벤트

전국대리점 단독
노비타 살균비데 보상판매
2026. 6. 1. ~ 7. 31.

에너지효율 1등급

노비타 비데 특별할인가제
*사용 비데 반납 시

무료수거, 무료설치

비데 필터 증정 (2개)

슬림비데 무브 리모컨형
BD-DES5-04RA

339,000원
299,000원

#3D무브 #3분케어 #물살변경
#자동탈취 #원적외선 건조
#다이아믹무브 #NEW회전노즐

살균비데 일반형
BD-H500EO

350,000원
310,000원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살균비데 리모컨형
BD-H700HO

439,000원
389,000원

#리모컨 #하루두번자동살균
#세가지수류 #다이아믹무브
#회전노즐 #강력방수(IPX5/리모컨 IPX7)

라인핏비데
BD-AFE5ON

299,000원
229,000원

#3년무상AS #슬림디자인
#공기방울세정
#강력방수(IPX5/조작부 IPX7)

슬림비데 컴팩트 리모컨형
BD-GCS4-03ERA

289,000원
269,000원

#3년무상AS #리모컨 #슬림디자인
#미스트세정 #누전차단기능
#강력방수(IPX5/리모컨 IPX7)

더블살균비데
BD-DHS8-01ORA

499,000원
449,000원

#3년무상AS #리모컨 #UV노출살균
#하루두번전체살균 #순간적수거열
#강력방수(IPX5/리모컨 IPX7)

구입문의

제주위닉스 총판 및 A/S센타 · 제주노비타 총판 및 A/S센타
064)758-0990~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삼성 서비스센터

신광로터리

● 빽스 ● 요양병원

WINIX novita

신제주로터리

● 마리나호텔

▲ 공항

마리나사거리